

D. Hume의 因果論

金 曉 明

(한양대)

- I. 序 論
- II. Hume의 經驗主義的 認識論
- III. 近接성과 繼起性
- IV. 不變的 連續性
- V. 必然的 聯關性
- VI. 結 論

I. 序 論

이 論文의 目的은 영국의 經驗論者 D. Hume의 因果論을 고찰해 봄이다. 實踐의 문제에 있어서나 理論의 문제에 있어서나 因果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哲學의 여러 영역, 특히 認識論과 形而上學의 영역에 있어서도 因果의 문제가 얼마나 重要性을 갖는지 등은 이미 상식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言及을 회피하겠다. 다만 지금까지의 西洋哲學에서의 因果에 대한 論議가 Hume의 理論을 빼놓고서는 불가능했을 정도로 Hume의 이론이 현대의 여러 類型의 因果이론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이들 여러 이론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Hume의 이론이 필수적이라는 점만 서두에서 강조해 두겠다.

그런데 철학하는 사람들 간에 Hume의 因果論만큼 널리 알려진 것도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因果論만큼 쉽게 철학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론도 또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오해는 비단 非Hume 학자들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Hume 학자들에게서 마저도 종종 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Hume의 因果論자체가 여러 가지 상이한 해석을 가능케 할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Hume의 인과론 중 必然性에 대한 부분도 그러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必然性의 문제가 특히 論難의 대상이 된 것은 經驗主義的 認識論에 기초하여 자신 因果論을 定位하려한 Hume이 이룩한 의도를 어느 정도 一貫되게, 그리고 철저히 수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Hume의 因果論을 體系의으로, 그리고 批判的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은 특히 必然性의 문제에 力點을 둘 것이다. 물론 必然性의 문제는 이 문제에 관한 Hume의 이론만으로도 한 논문의 單一主題로 될만큼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질 수 없겠지만, 必然性에 대한 Hume의 立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에 대한 筆者의 기본方向만큼은 제시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II. Hume의 經驗主義的 認識論

因果개념의 철학적 分析에 대한 Hume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우선 그러한 입장을 가능하게 한 근거로서의 그의 인식론부터 간략히 고찰해 두는 것이 논의의 진행상 도움이 되겠다. 주지하다시피 Hume은 인간마음의 모든 對象들을 크게 두가으로 分類하였다. 印象(impression)과 觀念(idea)이 그것이다.¹⁾ 그렇다면 인상과 관념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Hume은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생생함(vividness)이나 活性(liveliness)의 정도에서 찾았다. 이 부분에 관한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知覺은 印象과 觀念이라는 두개의 상이한 종류로 구분된다. 인상과 관념은 마음과 접하여 각기 상이한 힘(force)과 活性을 갖고 사유나 의식의 대상이 되는 바, 이때 그 힘과 活性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 양자가 구분된다. 힘과 활성의 強度가 가장 높은 지각을 印象이라 부르겠는데 우리의 모든 감각적 지각, 情念과 感情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觀念이란 일단 마음 속에 들어온 인상이 사유과정이나 추리과정에 다시 나타날 때 생기는 희미한 像을 의미한다. 예컨대 내가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시각과 촉각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지각이나, 때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快·不快의 감정등을 제외한 모든 지각이 관념에 속한다.²⁾

우리의 지각내용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는 흄의 分析이 合理論者들의 本有관념설을 뒤엎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학문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으나, 여하튼 이러한 분석에 기초한 그의 인식론은 적어도 그의 철학체제 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러가지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 예컨대, 實體(Substance)의 문제, 마음(mind)의 문제, 人格의 同一性(personal identity)의 문제등 - 이 모두 철저히 인상과 관념의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인식론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主題인 인과의 문

1) ‘觀念’이란 영구 古典경험론의 인식론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마음의 對象, 즉 表象을 뜻한다. Locke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모두 ‘관념’이라는 말로 통칭하였다. Cf. J. Locke,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Dover pub, New York) 1959. vol.1. p.32 그러나 Hume은 마음의 대상들을 ‘관념’이라 부르지 않고 ‘知覺’(perception)이라 부르면서 관념을 지각의 한 종류로 취급하였다.

2)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by L.A. Selby-Bigge, 2nd ed,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78. p.1 (이하 *Treatise*로 생략하겠음)

제도 예외는 아니다. 흄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의 의의는 비단 자신의 철학체제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서구의 철학사 전반과 연관시켜 보더라도 적지 않다 하겠다. 그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이 ‘형이상학적 망상에 사로잡혀 온 서구 지성인들의 ‘雜說史’로부터 인간의 정신을 구제해줄 수 있다는 것이 흄의 자신의 이론에 대한 옹호의 변이다. 철학자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공허한 논란을 되풀이해 온 경우도 실지로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흄의 그러한 일견 과격해 보이는 옹호의 변이 전혀 근거없는 것만은 아니라 보아진다³⁾ 그리하여 흄은 “우리가 어떤 철학적 용어가 정말 아무런 의미나 관념을 가지지도 않고 있지나 않을까하는 의심이 갈 때면 오로지 그 관념이 어떤 인상에서 나왔는가 하는 점만 고찰해 보면 된다. 만약 어떤 인상도 찾지 못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애초에 우리가 품었던 의심을 확증하기에 족하다”⁴⁾ 고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흄은 인상과 관념을 그 活性的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이를 다시 말한다면 인상과 관념 간에는 어떤 質的인 차이점 같은 것은 없고 근본적으로는 같으나 그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방식이나 순서 등에 따른 차이점 뿐이라는 뜻이다. 관념이 인상의 희미한 像이라는 말은 관념도 일종의 인상인데 바로 즉석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인상이 아니라 일단 직접적으로 형성된 인상이 우리의 마음의 作用에 따라 —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記憶(memory)이나 想像(imagination)에 의하여 — 再生되었을 때 생기는 像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과 관념 간에는 시간적인 先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관념이 인상의 再生이라는 뜻에서 類似관계(resemblance) 또는 對應관계(correspondence)등이 생각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상과 관념 간에 1대1의 對應관계나 類似관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 즉 單純한 인상과 單純한 관념들 간의 관계라는 영역에서만 유사관계와 대응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지각들 중에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歩道가 온통 金으로 되어 있고 건물들이 모두 루비로 만들어진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나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새로운 서울의 관념을 상상에 의하여 내 마음 속에 형성시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관념에 정확히 유사하고 1대1로 대응되는 인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例의 새로운 서울에 대한 관념은 단순관념이 아니라 複合관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의 복합관념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인상과 관념 간에 유사관계가 대응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흄의 한결된 주장이다. 그는 특히 단순인상과 단순관념 간에는 거의 예외없이 이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흄의 논의에서 ‘단순하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이다. 흄은 단순한 지각과 복합적인 지각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3) 言語의 意味를 指示的으로 (ostensively) 아니면 記述的으로 (descriptively) 定義를 내려 파악하고자 하는 20세기 言語哲學의 일반적인 경향은 바로 Hume의 印象과 觀念의 區別과 거의 병행된다고 볼 수 있다.

4) D. Hume, *Enquiries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by L.A. Selby-Bigge, (Oxford Univ. Press) 1962, p. 22.

(金曉明)

단순한 지각 또는 단순한 인상, 그리고 단순한 관념들은 분리될 수도 없고 差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에 반하여 복합적인 것들은 여러 부분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특정의 색깔, 맛, 냄새등이 이 사과에 묻혀 있더라도 그러한 성질들이 서로 같지 않고 적어도 상호 구분될 수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⁵⁾

흙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의 사과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인상과 관념은 모두 복합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성질들, 이를테면 색깔, 맛, 냄새등은 모두 단순한 것들이다. 그러나 단순하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흙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사과의 예를 들면서 색깔같은 것을 단순한 관념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색깔도 복합적인 관념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정의 색깔에도 구체적으로는 일정한 強度, 일정한 色調등이 나타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이 붉음과 저 붉음이 모두 붉은 색이지만 그 강도와 색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붉음과 저 붉음이 모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개 이상의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성의 기준과 관련된 이러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흙은 단순관념과 단순인상사이에 유사관계와 대응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단순한 지각의 경우는 어떠한지 고찰해 보자. 이 경우에는 — 내가 아주 면밀히 검토한 후 단언하는 바인데 — 단순한 인상과 단순한 관념사이에 예외없이 정확한 複寫 관계가 성립한다. 즉 모든 단순관념은 그것과 유사한 단순인상을 가지며 모든 단순인상은 그에 상응하는 단순관념을 가진다. …… 이러한 보편적 유사관계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떠한 단순관념, 또는 어떠한 단순인상일지라도 그것에 대응되는 인상이나 관념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보는 길 뿐이다. 그가 만약 이 물음에 답변을 회피한다면(그는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인데) 바로 그 사실로부터, 즉 그가 묵묵부답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결론은 입증된다.⁶⁾

인상과 관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 간략히 살펴 본 흙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知覺은 印象 아니면 觀念이다.
2. 모든 知覺은 單純하든가 複合의이든가 이다.
3. 모든 複合的 지각들은 전적으로 單純지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4. 모든 單純관념에는 單純인상이 대응한다.
5. 모든 단순관념들을 각기 그에 대응되는 단순인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겨난 것들이다.
6. 따라서 인상이 먼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思惟나 일체의 정신활동도 불가능하다.

5) *Treatise*. p. 2.

6) *Treatise*. p. 3~4.

이상의 6 가지 명제가 흄의 인식론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만으로도 그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하기에는 족하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인식론에 바탕한 그의 因果論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Ⅲ. 近接性과 繼起性

흄은 그의 「人性論 (A Treatise of Human Nature)」서 因果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定義를 내리고 있다.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 시간적으로 先行하고 시간·공간적으로 近接되어 있을 때, 그리고 前者의 대상과 類似한 모든 대상들이 後者의 대상과 유사한 모든 대상들과 시간적 先行, 시간·공간적 近接관계에 놓여 있을 때, 그 前者의 대상을 原因이라 한다.⁷⁾

한 대상에 대한 觀念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관념도 생기며, 한 대상에 대한 印象이 생길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대상에 대한 더 생생한 관념도 생기게 되는 식으로 마음 속에서 결합되는 두 개의 대상 중, 시간·공간적으로 近接되어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先行하는 대상을 原因이라 한다.⁸⁾

이 두가지 定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흄의 因果論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두 정의를 이해하려 함에 있어서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은 소위 ‘近接性’(contiguity)과 ‘繼起性’(succession)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다. 이 양자는 모두 두 정의에서 因果관계의 必要條件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흄은 왜 이 양자를 因果관계의 필요조건으로 간주 하였으며, 두 필요조건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부터 고찰되어야 하겠다. 흄은 이 두 조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因果의 觀念이 대상들 간의 關係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 보도록 하자. 첫째로 발견되는 사실은 原因이나 結果로 간주되는 대상들이 서로 近接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近接관계가 因果에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내가 因果관계에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번째 요소는 그렇게 널리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서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結果에 대한 原因의 시간적 優先(priority)이다.⁹⁾

그렇다면 우선 近接性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空間的 近接관계의 완벽한 例로서 흄은 두 당구공의 부딪힘을 들고 있다. 하나의 당구공이 굴러가서 다른 당구공과 부딪혔을 경우 첫째 당구공의 움직임과 두번째 당구공의 움직임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아무런 틈이 없다는 것이다.¹⁰⁾ 이 例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두 대상이 공간적으로 近接되어 있다함은 두 대

7) *Treatise*, p. 170.

8) *Treatise*, p. 170.

9) *Treatise*, p. 75 ~ 76.

10) cf. D. Hume, *Abstract of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by J.M. Keynes and P. Sraffa. (Cambridge Univ. Press) 1938. pp. 11 ~ 12.

상사이에 아무런 공간적 틈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대상간에 아무런 공간적 틈이 없다면은 또 무슨 뜻인가? 이 점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흄이 인과관계의 첫번째 必要조건으로 내건 近接性의 概念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흄은 ‘공간적 틈이 없다’는 말의 뜻을 더 이상 밝히지 않고 있다. 흄의 인과론에서 근접성의 조건이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문제는 시간·공간에 대한 이론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공간론의 일부라고도 여겨진다. 실지로 흄은 시간·공간을 따로 論하면서 시간·공간의 無限分割可能性(infinite divisibility)을 부인하였다.¹¹⁾ ‘공간적인 틈이 없다’는 말도 바로 공간의 무한분할가능성의 부인과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간은 정말 무한분할 불가능할까? 물론 흄이 그러한 주장을 할 때 말해진 공간이란 物理的 공간이 아니라 知覺的 공간(perceptual space)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분할가능성의 부인은 이론적인 難點을 다분히 함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인식론적·형이상학적 가설의 정당성이 먼저 확립되지 않고서는 近接性의 조건도 설 자리가 없다고 보아진다. 흄이 「人性論」을 내놓은 후 10년만에 다시 「人間悟性論」(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에서 因果문제를 다룰 때 근접성과 계기성의 조건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 버렸다는 사실은 바로 위에서 말한 난점들과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흄에 의하면 시간적 繼起도 因果의 또 하나의 필요조건이다. 그는 “原因이 되는 운동은 結果가 되는 운동보다 시간적으로 우선한다. 따라서 시간적 우선은 모든 原因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¹²⁾ 고 말하였다. 흄이 근접성 이외에 계기성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을 첨가시킨 이유는 소위 ‘因果의 非對稱性(Causal Asymmetry)’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原因이 반드시 結果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을 흄은 因果관계의 기본적인 사실로 보았고, 이 사실이 바로 시간의 비대칭성에 의하여 정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세기의 과학철학자 라이헨바흐(H. Reichenbach)는 시간의 先後관계를 因果관계의 비대칭성에 기초하여 정립하려 하였지만¹³⁾ 흄은 그 반대방향을 취하였다. 즉 시간자체가 先後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여 因果관계의 비대칭성도 확립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因果관계가 일정한 方向을 가지고 있다면 그 方向의 근거를 흄은 시간 자체가 直線의 형태를 띤 方向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에서 찾고자 한 셈이다. 흄은 因果관계의 비대칭성의 經驗的 徵表를 시간적 비대칭성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繼機性的 조건에 관한 흄의 이러한 주장에는 적어도 몇가지의 질문이 가능하다. 첫째, 인과적 비대칭성이 시간적 비대칭성에 근거한다고 보는 흄의 견해는 시간이 實在하고(real) 우주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는 存在論적으로 獨立되어 있다는 假定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이나 변화들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과연 時間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적 선후

11) cf. *Treatise*, part II. ‘Of the Ideas of Space and Time’

12) *Abstract*, p. 12.

13) cf. H. Reichenbach, *The Direction of Time*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1956.

관계가 오히려 因果관계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까? 시간의 存在論의 지위와 관련된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두번째 문제는 설혹 시간이 존재론적으로 독립된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시간의 흐름의 방향이 비대칭적인 것일까 하는 점이다. 시간이 비대칭적이라함은 시간이 一直線의 방향으로만 무한히 진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시간이 존재론적으로 實在物(entity)이라는 가정만큼이나 쉽게 의문시될 수 있는 가정이다. 예컨대 시간의 흐름이 열려진(open)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닫혀진(closed) 圓의 형태를 띠며, 따라서 비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대칭적인 것이라는 가설은 왜 정당화될 수 없는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존재론적으로 독립된 實在的이고 또 비대칭적인 것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남는다. 즉 因果의 방향이 어떻게 반드시 시간의 方向과 一致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因果의 비대칭성이 시간의 비대칭성에 의존한다는 주장은 因果의 방향과 시간의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가정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과연 두 방향은 一致하는가? 다시 말하여 結果가 原因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날 수는 없는가? 소위 '逆因果'(backwards causation)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¹⁴⁾ 逆因果란 것이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시간과 인과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가설에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IV. 變 不連的 連續

이상에서 우리는 흄이 말한 因果관계의 두 필요조건, 즉 近接性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흄에 의하면 이 두 조건들만으로는 因果관계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두 사건이 近接과 繼起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인과관계라 볼 수 없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의 관계가 因果관계라고 규정지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위의 두 조건이외에도 또 다른 요소가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근접성과 계기성의 두 관계가 因果의 관념을 완벽히 설명해 준다고 만족해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에 근접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先行하면서도 原因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고찰해야 할 요소로서 必然的 聯關性(necessary connexion)이라는 것이 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두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¹⁵⁾

Hume 이 이 구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의 因果論을 이해하는 데 거의 결정적이라 할만큼 중요하다. 그는 이 구절에서 必然的 聯關性이라는 관계가 因果관념에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근접성과 계기성만으로는 인과의 관념을 완벽히 해명할 수 없고 필연적 연관성, 즉 必然性이라는 요소까지 들추어져야 인과관념의 만족할만한 해명이

14) cf. M. Black, 'Why Cannot an Effect precede Its Cause?' *Analysis* 16 (1955), pp. 49~58
M. Dummett, 'Bringing About Past', *Philosophical Review* 73 (1964), pp. 338~59.

15) *Treatise*, p. 77.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 연관성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 Hume은 우선 필연적 연관성의 관념이 어떤 印象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그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성질들을 살살히 살펴보아도 거기에서 필연적 연관성의 관념과 對應될만한 인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Hume은 어떤 인상이 필연적 연관성의 관념을 낳게하였는지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구하는 길을 포기하고 대신 그 문제에 ‘힌트’가 될 수 있거나 ‘도움’이 될법한 다른 질문들을 우선 고찰해 본다. 그 질문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는 것이 必然的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떤 근거에서인가? 두번째 우리는 왜 어떤 특정의 원인이 특정의 결과를 필연적으로 낳는다고 결론짓는가? 그리고 원인에서 결과로, 또는 결과에서 원인으로 나아가는 推論과 그 추론에 우리가 부과하는 믿음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¹⁶⁾

첫째 물음에 대한 Hume의 답변은 단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게 마련이라는 주장은 “직관적으로 확실하지도 않고 論證의으로도 확실하지 않다”¹⁷⁾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Hume은 첫째 물음은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두번째 물음부터 고찰한다. 必然性의 성질을 탐구함에 있어서 Hume이 우선 염두에 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추론은 기억이나 감각인상과 그 인상에서 야기된 관념들로 구성된다”¹⁸⁾는 점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는 원인의 관념에서 결과의 관념으로 나아가는 추론과정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Hume은 철두철미 그의 경험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하고 있다. 즉 모든 관념들은 서로 상이하고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념도 궁극적으로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고 독립된 관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아무리 대상들을 면밀히 살펴본다하더라도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의 존재를 그 자체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으로부터 결과에로 나아가는 추리, 즉 因果推理는 개별적인 대상들을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상들의 본질까지 파고들어가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본질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어떤 인상에서 그와 인과적으로 관련되어있다고 생각되는 관념을 낳게 하는 추리의 근거는 무엇인가? Hume의 대답은 어디까지나 경험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만한다는 것이었다. 인과추리를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의 경험의 성질에 관하여 Hume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대상에 대한 경험을 여러번 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때 또 다른 종류에 속하는 대상들이 전자의 대상들에 근접과 계기라는 규칙적인 질서를 가지고 항상 수반되었다는 점도 또한 기억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불꽃’이라고 불리우는 대상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으며 이에 ‘熱’이라고 불리우는 감각이 항상 수반

16) *Treatise*. p. 78.

17) *Treatise*. p. 79.

18) *Treatise*. p. 84.

되어왔음도 알게 된다. 이러한 두 대상간의 不變的連續(constant conjunction) 현상이 수차례의 과거경험에서 확인되면 더 이상 고찰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전자의 대상을 原因, 그리고 후자의 대상을 結果라고 부르게 되며 전자의 대상으로부터 후자의 대상으로의 추리도 이와같이 하여 성립된다.¹⁹⁾

이 대목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Hume이 필연적 연관성의 관념의 出處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介在되어 있는 새로운 요소를 뜻밖에도 발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새로운 요소를 그는 '不變的連續'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불변적 연속의 관계야말로 우리가 원인이 되는 사건²⁰⁾으로부터 결과가 되는 사건으로 추리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의 경험이 가지는 성질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필연적 연관성의 관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인과관념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이 불변적 연속이라는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를 뜻하는가? Hume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즉 불변적 연속이라 할 때 '不變的'(constant)이란 무엇을 뜻하며 '連續'(conjunction)이란 무엇인지 직접적인 대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인용한 구절을 근거로만 판단을 내려볼 수 밖에 없는데 그가 '연속'이라는 말로 의미하고 있는 바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근접성과 계기성이라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연속이란 근접성과 계기성 이외의 별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Hume은 근접성과 계기성이라는 두 필요조건 이외에 또 제 3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연속을 말할 필요가 있었던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연속'이라는 말에서 보다는 '불변적'이라는 말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이는 다시 말하여 두 대상이 단순히 근접되어 있고 계기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두 대상이 인과관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그러한 類의 대상들이 항상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첨가되어야만 두 대상을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후세 사람들이 Hume의 인과론을 두고 그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規則性 이론이라든지, Hume의 인과론에서는 單一的(singular) 인과는 불가능하고 설명될 수도 없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불변적'이라는 말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 '不變性'을 Hume은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이 물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Hume의 주장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A) 유사한 대상들은 항상 근접성과 계기성이라는 유사한 관계에 놓여져 왔다.²¹⁾

이 진술 (A)야말로 Hume이 불변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의 대목이다. 진술 (A)에서 나타나는 말들 중에 '근접성'과 '계기성'은 이미 고찰

19) *Treatise*. p. 87.

20) 대상과 사건은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구별될 수 있고 또 실지로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區分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Hume의 인과론에 양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1) *Treatise*. p. 88.

된 바 있고, 아직 주목을 하지 않았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類似한’, ‘항상’ 등의 말이다. Hume의 인과론을 이해하자면 불변적 연속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불변적 연속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진술(A)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진술(A)를 알려고 한다면 그 진술 속에 나오는 여러 말들, 특히 ‘유사한’, ‘항상’ 등의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유사한’이란 말부터 간단히 고찰해보자. 類似性(resemblance)의 개념은 사실 지금까지도 철학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말한 진술(A)와 관련하여 유사성에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물음은 ‘유사한 대상’이라고 말할 때 유사한 대상들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이다. 어떤 대상 x 가 주어지고 x 와 유사한 대상들이 있다면 이러한 대상들은 분명히 하나의 集合을 이룰 것이다. 그러한 집합이 어떻게 확인될 수(identify) 있으며 또 選別될 수(select)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은 물론 類似관계에 의하여 선별된다는 것일 것이다. 즉 x 와 유사관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의 집합이 ‘유사한 대상’이라는 말의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사실은 대답이 아니다. ‘유사한 대상’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유사관계에 있는 모든 대상이라는 말과 동의어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바로 유사성에 관한 철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있다. Hume은 유사성에 ‘많은 상이한 정도’²²⁾가 있고 또 무한히 많은 정도가 있다고만 말하고 있을뿐 더이상 유사성의 개념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사성의 관계야말로 Hume 자신이 실토하였듯이 가장 쉽게 오류를 저지룰 수 있는 원천이다.²³⁾ 이와같이 철학적으로 아직 해명되지 않은 유사성의 개념에 의존하여 문제의 집합을 선별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Hume에 의하면 유사성은 ‘一見에 대번 발견될 수 있으며’, ‘제2의 검토’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유사성은 바로 직관적으로 확실한 앞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두 대상이 유사하다는 것이 어떤이에게는 직관적으로 확실하지만 또 어떤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면 직관적 확실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직관적으로 확실하다고 판정된 유사성도 사실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사성이 만약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진술(A)에서 말하는 ‘유사한 대상’들의 집합도 역시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다시 말하여 진술(A)에 의거하여 파악된 인과관계도 객관성이 없다는 뜻과 연결된다. ‘유사한 대상’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어주는 기준이 Hume이 말한대로 순수히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인식론적인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진술(A)로 설명되고 있는 Hume의 불변적 연속의 관계도 객관

22) *Treatise*, p.142.

23) cf. *Treatise*, p.61. Quine도 有袋類의 쥐(marsupial)가 보통의 쥐(mouse)와 감각적으로는 類似하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예를 들면서 類似性和 관련된 철학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cf. W. V. Quine,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9, p. 129.

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다음 '항상'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자. 현대의 많은 Hume 학자들은 '항상'이라는 말로 Hume 이 뜻하고자 한 바는 因果관계나 모종의 規則性(regularity)을 띠는 점이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하여 規則性의 개념이 因果관계를 특징짓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 Hume 의 이론이라고 해석한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M. Schlick 이다. 그는 "만약 E가 규칙적으로 C에 수반한다면 C는 E의 원인이며, 만약 E가 어쩌다가 C에 따라 일어날 뿐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²⁴⁾ 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기준으로 因果와 우연을 구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Hume 이 말한 '항상'이라는 말의 뜻을 충분히 밝힐 수 없음도 또한 물론이다. '항상'이라는 말의 뜻이 '규칙적으로'라는 말의 뜻과 같다면 '규칙적으로'라는 말의 뜻은 또 무엇인지 물을 수 있겠고 이 물음은 전자의 물음과 원리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함은 적어도 한번 이상 일어났음을 의미할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일어나야 우리가 '규칙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하는 점이다. 규칙성 이론가들은 아마도 이 물음에 'C가 일어날때마다 E가 따라서 일어난다면' 규칙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도 만족할만한 대답이 못된다. 왜냐하면 적어도 Hume 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의 계열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규칙적으로 일어났다하더라도 미래에도 그러리라고 장담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C가 일어날 때마다 E가 따라서 일어난다'는 말은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포괄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 말은 Hume 이 말한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겠고, 또 설혹 적합하다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의미로서의 규칙성만으로 因果개념을 훌륭히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문제는 소위 '法則'(law)의 존재론적 근거와 관련된 과학철학의 한 중대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으나,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임시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진술(A)로 설명되는 不變的 連續의 개념만 가지고서는 因果的인 사건의 계열과 우연적인 사건의 계열을 구분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학자들이 Hume 의 이론이 여기서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실은 Hume 의 이론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또 하나의 요소, 즉 필연적 연관성도 그의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V. 必然的 聯關性

因果관계에 불변적 연속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점을 살핀 다음 Hume 은 본래의 주제였던 필연적 연관성(necessary connexion)의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우리가 두 대상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必然性的의 관념이란 어떤 관념인가?'²⁵⁾

24) M. Schlick, 'Causality in Everyday Life and in Recent Science', in *Philosophical Papers*, ed. by H.L. Mueller. p. 239.

25) *Treatise*, p. 155.

(金曉明)

는 것이 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던진 질문이었다. 필연성의 관념을 낳게 한 印象을 찾아 보자는 것이 그가 우선 의도한 바였으며, 그러기 위해서 우선 원인과 결과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대상들을 살펴볼 것을 권한다. 더 나아가 앞에서 논의한 불변적 연속의 관계도 살펴볼 것을 권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필연성의 관념을 낳았다고 할 만한 印象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Hume의 결론이다.

Hume의 필연성이론에는 否定的 측면과 肯定的 측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²⁶ 부정적 측면에서 Hume이 의도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연성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부수자는 것이었다. 당시 필연성이 힘, 에너지등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Hume에 의하면 그러한 정의들이 모두 잘못된 것들이다.²⁷ 필연성에 관한 잘못된 이론들을 논파하기 위해서 Hume은 두개의 '너무나 명백한' 원리에 의존한다. 즉 '첫째, 理性만으로는 결코 어떠한 관념도 생길 수 없으며, 두번째 경험과 구별되는 理性만으로는 모든 存在에는 절대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²⁸는 원리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전통적인 여러 견해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즉 理性만으로는 필연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Hume의 지적이다. Hume의 이러한 비판은 물론 '모든 관념들은 인상에서 나왔으며 인상을 대변한다'는 그의 인식론적 기본입장에 근거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필연성의 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에는 힘(power)이나 效能(efficacy)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필연성의 관념을 우리 머리속에 심게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힘이나 효능이라 불리우는 어떠한 印象도 가지고 있지 않다'²⁹는 것이 Hume의 주장이었다.

만약 힘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홀로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존재하는 어떤 것의 속성으로 있을 것이 보통인 즉, 힘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존재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Hume은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반적인 관념에 종속되는 여러가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종류로서의 힘들도 파악할 수 있을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힘이란 홀로 存在할 수 없고 항상 어떤 存在物의 속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 속에서 힘의 存在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게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실지 연관성을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지하게 될 것이며 여러번의 경험을 할 필요도 없이 또 한번의 경험만으로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두 대상간의 연관성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감지할 수 없고 또 두 대상을 결합시켜주는 힘이나 효능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도 파악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 즉 어떤 구체적인 힘이 어떻게 구체적인 대

26) cf. J. Bennett, *Locke, Berkeley, Hume: Central Themes*. (Oxford Univ. Press), 1971. chap. XI and XII.

27) cf. *Treatise*. p. 157.

28) *Treatise*. p. 157.

29) *Treatise*. p. 161.

상에 存在할 수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한다면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³⁰

이 구절에 피력되고 있는 Hume 의 주장은 지나칠 정도로 과격한 주장인데 이는 그 주장이 발판으로 삼고 있는 그의 인식론적인 기준자체가 그만큼 엄격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요컨대 어떤 대상이건 구체적인 대상에서 힘이나 필연성의 인상을 획득하였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대상이 그러한 대상인지 한번 지적해 보라는 요구에 그는 절대적으로 응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지시가능성(ostensibility)이 Hume 에게 있어서는 바로 意味論的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Hume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초원적인 존재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물이든— 그것이 힘이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러한 힘때문에 두 대상간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사용하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말하는 모든 경우, 그러한 말들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관념도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표현들이 애당초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 보다는 잘못 적용 또는 사용됨으로써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다.³¹

이상이 Hume 의 필연성에 관한 이론의 否定的 측면의 결론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Hume 이 이상으로 필연성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해명하였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위의 구절에서 ‘잘못 적용함으로써’라는 표현을 Hume 이 특히 강조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다시 말하여 이 표현으로 Hume 이 말하고자 한 바는 ‘효능,’ ‘힘,’ ‘필연성’ 등의 말들이 잘못 적용되고 잘못 사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Hume 의 필연성의 이론이 가지는 또 하나의 측면, 즉 긍정적 측면도 고찰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한 문제의 표현들이 ‘잘못 사용된다’면 바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암시되고 있다. 즉 Hume 도 스스로 말하였듯이 그러한 표현들이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만 사용되면 정당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 표현들의 ‘원래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Hume 은 필연성의 문제에 관하여 ‘또 다른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다.³² ‘필연성’이라는 말이 분명한 의미가 없는 경우는 Hume 에 의하면 그 말이 外的 대상에 적용되었을 경우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Hume 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필연성의 관념에 해당하는 인상이 外部세계에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엄

30) *Treatise*. pp. 161 ~ 62.

31) *Treatise*. p. 162.

32) cf. *Treatise*. p. 162.

연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 ‘필연성’이라는 말이 外的 대상에 적용되어서는 명확한 의미가 없고 필연성의 관념을 낳은 인상도 外的 대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필연성의 관념을 가지게 되었는가이다.

필연성의 관념의 가능한 출처로서 Hume이 그 다음에 고찰해 본 것은 유사한 사례들의 경험적 반복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가능성도 곧 바로 부인된다. 왜냐하면 “ 완벽하게 유사한 사례들이 아무리 반복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어느 사례에서도 발견된다고 볼 수 없는 필연성의 관념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³³ 필연성의 관념을 낳게 한 것은 그러한 경험의 반복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일 것이다.

여기서 Hume이 찾은 탈출구는 인간의 心性과 관련된 것이다. 이 점은 바로 Hume철학의 특징, 즉 心理主義라고 일컬어지는 특징과 연관이 된다. 경험의 반복이 그 자체 필연성의 관념을 직접 낳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한 경험의 반복이 인간의 마음에 모종의 영향을 끼칠것만큼은 틀림없다는 것이 Hume의 착안점이었다. 즉 유사한 경험이 반복됨으로써 그러한 경험을 반복한 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에 스스로 필연성이라는 관념을 생성케 하는 인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인상이 생성되는 과정을 Hume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단 우리가 유사한 事例들을 충분히 관찰하고 나면 즉각 우리의 마음에 어떤 傾向性(determination)이 생겨 하나의 대상이 주어졌을 때 그 대상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다른 대상도 함께 생각될 것이며 이에 따라 유사성의 관계를 좀 더 강하게 이해하려는 습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마음의 경향이 유사성이 낳은 유일한 결과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힘이나 필연성의 관념도 유사성에서 결과한 것이므로 그러한 마음의 경향은 힘이나 필연성과 동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유사한 현상들을 여러차례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필연성의 관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자체로서는 완전히 독립되어 서로 아무런 연관성도 가지지 않는 유사한 여러 사례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듯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에서일 뿐이다.³⁴

결국 Hume의 주장에 의하면 필연성의 관념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Hume이 필연성의 관념에 대응되는 인상이 인간의 外部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内部에는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뜻이다. 즉 필연성의 관념은 내적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필연성이란 마음의 內的印象이외에 별것 아니다. 하나의 대상이 주어졌을 때 그대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어 온 대상을 자연히 떠올리게 되는 마음의 경향이 바로 그러한 내적인상이다.³⁵ 필연성의 관념에 대응되는 外的인상을 부인하였다는 것이 Hume이론의 부정적 측

33) cf. *Treatise*. p. 163.

34) *Treatise*. p. 165.

35) *Treatise*. p. 165.

이라 한다면 그에 대응되는 內的인상은 있다고 한 것은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Hume 의 인과론을 이야기할 때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을 논의해 왔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이 어떤 의미에선 더 중요하다. Hume 의 철학이 인간의 마음에 관한 學 (science of the mind)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必然性에 관한 그의 이러한 이론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요소가 생각된다.

VI. 結 論

이상에서 살펴 본 Hume 의 因果論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Hume 이 因果의 문제를 본 기본적인 視角이 철두철미 그의 認識論의 기준에 입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Hume 철학의 거의 모든 내용은 經驗主義의인 인식론의 地盤 위에 서있다. 모든 문제를 經驗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비추어 생각한 것이 Hume 이었다. 그가 因果의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外的世界的 在存문제나 歸納原理의 正當化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으며, 또 自我의 實體性을 부인하고 人格의 同一性을 부정한 이유도 모두 그의 經驗主義的 철학정신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因果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경험주의 인식론에 바탕하여 논하였다는 것이 Hume 인과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그의 인과론이 心理主義的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본문에서 밝혔듯이 因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경험주의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必然性에 관한 일반적인 通念을 부수었다는 점이 그의 인과론의 否定的 측면이라 한다면, 인과관계를 필연적이라고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의 정당한 근거를 밝혔다는 점은 肯定的인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 이 後者의 측면이 心理主義와 연관된다. 왜냐하면 必然性이라는 관념의 정당한 근거를 Hume 은 바로 인간의 心理作用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Hume 의 인과론이 가지는 하나의 중대한 難點이 발생한다. 인과관계에서 Hume 이 밝혀낸 3가지의 객관적인 요소, 즉 時間과 空間의 관계, 그리고 不變的 連續의 관계는 인과관계의 必要조건은 될지언정 充分조건은 안된다. 그기에다 必然性이라는 제 4의 요소가 첨가되어야만 인과적인 사건계열과 우연적인 사건계열이 구별될 수 있다. Hume 도 이 점은 인정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Hume 의 이론에 있어서 필연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필연성까지 합쳐 4가지 충분조건으로 파악되는 인과관계는 결국 객관적인 인과관계라기 보다는 주관적인 인과관계가 되고 만 셈이다. 바로 이 점이 Hume 의 인과론이 당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이자 그의 이론의 취약점이기도 하다. 왜 취약점인가하면 因果와 偶然의 구별이 Hume 의 이론에서는 결국 主觀的인 구별이고 心理的인 구별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Hume 철학의 一面만 본 결과일 수도 있다. Hume 이 必然性的관념의 원천을 自然이 아니라 人間の 本性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와같은 결론이 나왔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애초에 내세운 경험주의의 原則에 密着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그의 철학의 또 다른 측면을 본다면 과연 Hume 이 경험주의적 원천을 끝까지 고수

(金曉明)

하고 있는지하는 의심이 갈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심은 또한 Hume 철학이 비교적 一貫性 이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理論의 體界와 관련된 중대 矛盾點을 숨기고 있지않나 하는 제 2의 의심을 낳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관념들 상호간에는 모종의 聯關性을 인정하면서도 自然속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들은 각각 절대 독립되어 있어서 아무런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한 Hume의 주장이 전반적인 그의 철학체제내에서 과연 아무런 무리도 없이 세워질 수 있는지 — 이 점은 그의 인과론이 남긴 宿題중의 하나이다.